

## 춤추는 도시를 허(許)하였는가?\*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안에서의 춤 역할과 그 양면성 -

김주희\*\*

I. 들어가는 글	역할과 한계점
II.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서울댄스프로젝트가 표방하는 공공성	IV. 나오는 글 참고문헌
III. 서울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춤 행위의	Abstract

### I. 들어가는 글

코로나가 엄습하기 전 대한민국을 들썩이도록 만든 이슈 중 하나가 도시재생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키는 정부 주도 토지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해진 뉴타운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재생특별법을 2013년에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총 5조 원 정도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서울, 부산, 강원 등 전국 18곳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헤럴드경제, 2017.1.16.).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업방식을 철거에서 재생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생태환경을 조성하거나 문화조성, 예술조성 등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거대 사업 안에서 춤이 담당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사실 도시재생사업에서 춤의 위치 찾기는 참으로 생경해 보인다. 하지만 춤과 도시재생의 관계짓기가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무용 현장에서는 ‘춤추는 도시’, ‘춤추는 서울’, ‘러시 아워 콘서트’등과 같은 타이틀을 내걸고 도시와 춤예술을 끊임없이 조우시키려는 시도를 하여 왔다.

그 이유는 비판적인 공간적 탐구와 분석을 시도한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의 사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자는 사회 공간적 현상이 도시로 의미 지어진 것이며, 도시는 실체화된 사회적 산물로서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도 19세기 동안 문화의 개념이 다수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 예술이나 문학의 형식에 연결되어 반민주적으로 축소되어 사용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일상적인 것’이야말로 문화가 사회적 상호작용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2026916)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대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sunjang33@gmail.com

용을 통해 진정한 문화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였다(크리스 바커, 2009, p.11). 도시는 개인,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장소 그 자체라는 점에서 문화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존 윌렛(John Willett)도 『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1967)을 통해 소수 엘리트 예술전문가들의 취향이 일반 시민들의 정서에 개입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공공예술’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예술은 예술이 갖는 경계의 턱을 낮추고 도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발전해왔다. 무용 또한 포스트모던댄서들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이 갖고 있는 재현의 스펙터클과 극장의 권위, 훈련받은 신체가 갖는 권력에서 벗어나 움직임 그 자체에 집중하여 무대 밖 공간에서 반무용적 시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는 무관해 보인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너무도 익숙하여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은 도시라는 문화공간을 춤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와 춤을 살펴보는데 있어 먼저 서울시 산하단체인 서울문화재단이 시민예술 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춤단’, ‘게릴라 춤판’, ‘춤바람 커뮤니티’, ‘커뮤니티 댄스 랩’, ‘체어 댄스’, ‘서울 무도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개요에서 밝히는 장소는 서울 곳곳이며, 대상은 춤을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누구나이다. 이 중 ‘게릴라 춤판’은 서울재생사업에 선정된 낙원상가와 세운상가 등에서 시행되었다. 모든 구성내용은 춤을 통한 ‘서울시민의 공동체적 의식’을 강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공간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된다. 서울댄스프로젝트의 공공성 고취와 관련한 행사취지의 내용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제시한 ‘서울시민의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구축’이 지향하는 공동체성이라는 미명과 규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과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댄스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공동체성을 점검해 보고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정책에서 춤이 어떠한 전략으로 활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과 춤에 대해 논의한 국내연구로는 김연희(2017)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사업 안에서 나타나는 커뮤니티 댄스 기능을 연구하여 친밀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주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현주, 안병주, 원서영(2012)의 연구가 상관성을 지닌다. 이들의 연구는 정부 주도 아래 아시아 문화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건립된 ‘광주아시아 문화의 전당’ 지역에 예술전문기관이 건립됨으로써 예술이 제공하는 도시재생 개념과 지역 특성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참고자료로 유의미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와 지역적 차별이 있으며 중점적으로 도시재생을 조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별성을 지닌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댄스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 논문 중에는 박관호(2016)의 연구가 있다. 그의 연구는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댄스프로젝트에 참가한 대상자를 인터뷰하여 정부 산하가 주도하는 커뮤니티 댄스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관호 연구의 인터뷰 내용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도시재생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대부분의 공간은 근대 이후 현대로 치닫기 위한 산업화 과정에서 과열되거나 소외된 장소들이다. 이러한 장소들은 산업사와 시대사를 유추할 수 있는 많은 의미를 담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록방식이 요구된다. 무용작품 「구룡동 판타지-신화재건 프로젝트」(2011)의 경우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지역인 구룡마을<sup>1)</sup>을 재해석하여 다루었으며, 한국 최초의 주상복

합 건물로 지어졌던 세운상가<sup>2)</sup>를 무대로 공연된 「상실 그리고 잊혀짐(망각)」(2012), 댄스필름「풍정. 각:세운상가에서 낙원뿔뿔」(2016)은 슬램화된 세운상가를 무대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 철거 예정지인 성남시 태평동 일대를 배경으로 촬영된 댄스필름 「나는 사자다」(2019)가 있다. 재생도시 공간에서의 춤은 도시 재생공간을 작품의 소재로 재해석하기도 하고, 역사의 현장을 배경삼아 춤과 함께 기록하기도 한다.

연구에 앞서 본 연구를 논의하는데 있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댄스프로젝트는 각기 별도의 정책 사업이라는 점과 서울댄스프로젝트의 경우 종료된 행사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그리고 이 연구가 계획된 시기적 측면이 반영되어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거대 자본이 투자된 국가사업 안에서 다양한 해석은 앞으로의 효율적 운영과 보다 나은 미래 대안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II.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서울댄스프로젝트가 표방하는 공공성

### 1.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서울에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1960년대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사업에 기인한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진입은 노동인구를 급격하게 도시로 이동시키면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 시켰다. 도시로 과밀 된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지역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빠르게 개발된 서울지역이 노후화되면서 시행된 재개발 사업이 지가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을 불러 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1983년에는 ‘도시재개발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의 재개발 방식과 유사한 합동재개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권 단위의 뉴타운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강맹훈, 2017, pp.9-10). 쇠퇴된 서울지역을 회복하고자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 주도한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정책으로 이어지며 정부 사업의 중심이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수해 걷는 길로 변화시킨 ‘서울로7017’과 폐쇄된 상암동 석유비축기지의 탱크를 일부 개조해 문화공간을 바꾼 ‘문화비축기지’를 소개한다(정계성, 데일리안, 2021.2.21.).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도시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은 서울시가 시행하기 전 부터 다양한 해외

1) 구룡마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무허가 집단거주지이다. 무허가 주택이 많아 잇따른 화재가 나는 등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으로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주민 간 다툼과 지자체간의 소송으로까지 번져 화제가 되었으나 현재 공영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2) 세운상가는 건축가 김수근이 1968년 율락업소가 준비하던 종로 판자촌 일대를 재개발하여 만든 국내 최초 종합 전자 상가이자 주상복합건물이다. 이 건물은 점차 1970년대 중반까지 전자 산업의 메카라 불릴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하였지만 1987년 정부가 용산역 서부에 세운상가 상점들을 이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에 명성을 잃고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다. 노후화된 이곳은 철거위기에 놓였다가 최근 재생사업장소로 전환되었다.

성공 사례가 있었다. 일찍이 도시 산업화를 일궈낸 선진국에서는 예술을 통해 도시재생 시킨 도시 재활성화사업으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국가 인지도 상승 등의 경제효과를 얻고 있었다. 스페인 빌바오의 경우 낙후되어 방치된 15세기 제철소에 미술관(Bilbao Guggenheim Museum)을 건립하여 현대 추상예술의 메카로 거듭났으며, 미쓰비시 철광석제련소로 인해 자연파괴가 심각해지고 폐기물이 쌓인 지역에 일본 나오시마 지중미술관(地中美術館)의 아트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년 5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탈바꿈되었다(원재무, 2012, p.286). 영국의 런던 게이츠헤드(Gateshead)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쇠퇴기를 걸은 제분공장을 리모델링한 후 현대미술관(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공공미술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연평균 2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었고, 런던 테이트모던(Tate Modern Collection)은 2차 세계대전 후 전력공급을 위해 만든 발전소 건물을 현대미술관으로 재생시켜 2천 4백 개 이상의 고용창출과 산업종사자가 5만 8천 명 이상이 증가되었다(원재무, 2012, p.286).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홍보 할 수 있는 소식지, 화보집, 백서, 관련 도서를 제작하였다.<sup>3)</sup>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균형발전포털’에서 밝히고 있는 도시재생의 목표는 ‘지속가능 동력을 장착한 체감가능 도시재생’으로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하여 시민이 함께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설정하였다(서울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 그리고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에 ‘국가와의 분권과 협력’,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지속가능한 미래)’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서울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

하지만 위의 해외 사례들처럼 문화적 도시재생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도시재생 광풍을 일으키며 의욕적으로 이끈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가 161억18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한림제지 문화거점 공간’은 대상지 선정과 사업 방식,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서중권, 시사저널, 2022.3.29.). 준공 허가도 나기 전 운영비 10억90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착공도 전에 이벤트성 행사 운영비로 6억 원 가량이 지출되었고 전시, 공연이 있을 경우 지역민과 관람객이 겪는 이용의 불편함, 주변 상권의 피해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서중권, 시사저널, 2022.3.29.). 서울시는 문래동 공공부지에 ‘제2 세종문화회관’이라 불리는 1000석 규모의 콘서트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공방 중심의 문래창작촌 예술가들이 콘서트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김찬호, 경향신문, 2019.1.1.). 게다가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이 지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오히려 지역 예술가들을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하는 기현상을 낳았으며 이에 대해 ‘건물주들이 할 일을 세금을 들여 서울시가 대신해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있다(김찬호, 경향신문, 2019.1.1.). 서울시 창신·송인 도시재생사업에는 총 86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지역생활 변화에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지역민들이 토로 하고 있다(공성윤, 시사저널, 2021.2.24.).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벽화만 그리고 회의만 한다’는 지적은 주민생존권이 보호되지 않은 채 무리

3) 서울시 간행물로 심영규(2017). 『쑥쑥 읽는 도시재생』, 정종대(2013). 『우리마을 만들기: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백서』, 서울특별시(2019). 『서울형 도시재생: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화보집』, 서울시특별시(2017).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지역: 소식지 모음집』 등이 출판되었다.

하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 시켜 관광화 하려는 행정 편의적 관료주의 한계라는 회의적인 자조가 담겨 있다(허남설, 경향신문, 2021.5.12.).

## 2. 서울댄스프로젝트

2003년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울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울문화재단은 설립 취지를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밝힌다(서울문화재단 문화 플러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는 2013년 춤추는 서울 ‘서울댄스프로젝트’ 소식을 알리며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함께 게시한다(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댄스프로젝트는 ‘누구나 늘 함께 춤추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한다(서울댄스프로젝트 기록집).

2013년도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은 ‘춤바람 선포식’, ‘게릴라 춤판’, ‘춤바람 커뮤니티’, ‘춤 야유회’, ‘서울무도회’, ‘체어댄스’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주요 프로그램은 ‘춤단’, ‘게릴라 춤판(쇼케이스)’, ‘춤바람 커뮤니티’, ‘커뮤니티 댄스 랩’, ‘서울무도회’, ‘체어댄스’, ‘대학무용제’로 짜여졌다. 2015년도는 ‘춤단’, ‘게릴라 춤판’, ‘춤바람 커뮤니티’, ‘춤 다:방’, ‘커뮤니티 댄스 랩’, ‘댄스 페스티벌(서울무도회)’, ‘대학무용제’로 조직되었다. 2016년도는 ‘춤단’, ‘게릴라 춤판’, ‘춤바람 커뮤니티’, ‘커뮤니티 댄스 랩’, ‘체어댄스’, ‘서울무도회’로 제공되었다. 행사가 개최된 4년 동안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의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박관훈(2016)은 행사가 개최된 처음에는 커뮤니티댄스 축제 정도로만 강조되다가 회 차를 거듭할수록 목적성이 드러났으며 전복이 일어나는 공간을 실현하는 과정 중심 축제라는 성격을 나타냈다고 파악한다(박관훈, 2016, pp.17-18).

『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에 따르면, ‘춤바람 커뮤니티’는 육아공동체, 주부모임, 시민단체, 작가모임, 직장인 등 커뮤니티를 위한 춤 프로그램으로 춤 참여 커뮤니티 공모와 전담예술가 및 커뮤니티 대표자 사전 워크숍, 네트워킹, 전담예술가 월례포럼, 심화 워크숍, 서울무도회의 운영과정을 갖고 있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p.46-47). ‘춤단’은 오디션을 통해 춤에 관심 있는 일반인 100명 선발, 춤 공동체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춤단 공모, 전담예술가 공동 기획 회의, 오디션, 워크숍, 게릴라 춤판(야외공연), 서울무도회, 해단식의 운영과정을 갖는다. ‘커뮤니티 댄스랩’은 커뮤니티와 춤이 만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춤의 공공성과 가치 탐구 프로젝트로 전담예술가 공동 기획 회의, 현장 리서치, 워크숍, 워킹 프로세스 포럼, 오픈 스튜디오의 운영과정을 갖는다. ‘체어댄스’는 사무공간,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상제작 및 배포를 위해 영상제작, 다운로드 페이지 구축, 서울문화재단 시범운영,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워크숍, 학교 활용편 UCC 제작 공모전의 운영과정을 갖고 있다. 체어댄스를 제외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예술가 협력&현장지식공유 및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안무가, 음악감독, 기술감독, 전문무용단체, 음악밴드, 무대미술가 등 다양한 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목적은 2013년 ‘커뮤니티 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는 축제’, ‘축제를 통한 각종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시민참여 제고’, 2014년 ‘서울시민을 힐링 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 필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춤문화를 조성하여 서울살이의 즐거움과 공동체성 회복’, 2015년 춤을 통한 발산과 교감을 기반으로 서울 곳곳에서 시민참여형 춤판을 벌이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발굴, 서울살이의 활력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시민행복감 증진, 2016년 춤을 통한 몸의 회복으로 자존감을 찾고 서울살이의 공동체성 경험, 춤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만남의 가능성 실현이다(박관훈, 2016, p.18). 여기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키워드는 ‘춤’, ‘커뮤니티’, ‘공동체성’, ‘참여’, ‘시민’, ‘서울살이’, ‘즐거움’이다.

### III. 서울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춤 행위의 역할과 한계점

사실 무용에 있어 도시의 노후 된 건물이나 활용도가 떨어져 무용지물이 된 공간을 활용한 공연은 50년 전부터 루신다 차일즈(Lucinda Childs), 메르디스 몽크(Meredith Monk), 트리샤 브라운(Trisha Brown), 안나 헬프린(Anna Halprin), 에이코-코마(Eiko&Koma) 등의 많은 무용가들과 플럭서스 그룹, 해프닝 작가들에 의해 개척되었다(김채현, 2017, 춤인). 하지만 단순한 이벤트를 떠나 지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는 작품은 미국의 「슬립 노 모어(sleep no more)」(2009)가 대표적이다. 첼시의 폐허가 된 공장지대에 있는 낡은 맥키티릭 호텔(McKittrick Hotel)에서 공연을 투어 하듯 돌아다니며 관람하는 방식은 공연예술계에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이 없어 쓸쓸스레 덩그러니 있는 뉴욕 브루클린의 포머 그린포인트 병원(Former Greenpoint hospital)을 무대 공간으로 한 「덴 쉬 펠(then she fell)」(2013) 등이 있다. 「슬립 노 모어」나 「덴 쉬 펠」의 경우 버려진 공간을 이머시브 시어터(Immersive Theater)로 전환시켜 상업적인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 사례들은 공공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무용작품들이 도시재생공간에서 공연되자, 도시재생과 춤을 연계 시키지만 정부가 주도한 도시재생사업은 자생적인 예술생태계를 조성 시킨다는 측면에서 공공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산업혁명을 일찍이 경험한 도시들은 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정책이 지역경제발전과 도시매력도를 향상 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점차 개인의 삶과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다(박은실, 2018, pp.23-24). 벤 윌슨(Ben Wilson)은 공공의 영역을 논의하는데 있어 개인과 개인의 삶이 서로 연결되고 어울림과 뒤섞임이 가능한 광장과 거리, 정원, 공원, 커피점, 강당, 극장, 박물관, 산책로를 공공영역으로 설명한다(벤 윌슨, 2021, p.337). 그런 의미에서 공공예술은 단순히 세금으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을 짓거나 시설, 동상, 기념비,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행위 및 활동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댄스프로젝트는 공공의 공간에서 춤을 통해 공공예술을 실현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의 오인경은 서울문화재단의 공공예술 사업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대중의 참여와 협력을 매개 하는 방식을 통해 도시 공간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는 과정 중심 형태로 변모했다고 소개하고 있다(오인경, 강수영, 춤웹진, 2018.1.10).

#### 1. 춤을 통한 공론장 마련

서울댄스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벤트에서 벗어나 지속성을 지닌 행사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또한 누구

나 참여 가능한 춤문화 조성과 더불어 소통과 만남을 통해 행복한 도시민의 삶이 가능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시민이 행복과 공동체 회복, 사회통합을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서울댄스프로젝트와 도시재생사업이 갖는 미션에서 ‘행복한 도시민의 생활’, ‘공동체성 회복’, ‘사회적 소통과 통합’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한 장소를 마련하고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서울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공공성의 구조변동』(1962)에서 시민의 공공영역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되는가에 주목하면서 강조한 공론장과 연결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근대의 통합방식이며 신문, 잡지, 살롱, 커피 하우스, 각종 모임, 단체 및 상품의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평등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공론장 형성에 도움을 주며 공론장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국가권력과 경제력이라고 말한다(곽정연, 2017, p.679). 곽정연은 공론장을 참여하는 기준을 설명하는데 있어 칸트의 자유 이성을 들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성이 공공성의 주요 요건이라고 말한다(곽정연, 2017, p.680). 르페브르(2000)도 그 누구라도 도시를 향유하고 공간의 담론과 문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공간이 아니라 과정 중에 생산된 공간,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싼 여러 사회관계들이 상호교차하고 중첩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실현되는 잠재적 공간에 주목한다(강슬기, 2021, pp.201-210, 재인용).

서울댄스프로젝트가 공론장 역할을 위해 실천한 프로그램의 의도는 이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지닌다. 하지만 서울댄스프로젝트 역시 지속성을 갖지 못했으며 참여와 공공 공간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에는 게릴라 춤판을 벌일 때 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시민이 춤추는데 ‘참여할 권리’, 춤추기 때문에 ‘자유로울 권리’에 대해 적고 있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11). 이 글에는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소음공해로 신고를 하면 사전 허락 된 행사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지 한다고 하지만 김운진 기획감독은 내부 평가회의에서 기습과 충격의 기법 대신에 사람 간의 접촉과 연결 가능성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게릴라를 버리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록팀도 이에 동의한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147). 르페브르는 공간을 생산되는데 있어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나 갈등은 불가피하며 상호교차하고 중첩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강슬기, 2021, p.212, 재인용).

김채현의 리뷰에서도 서울댄스프로젝트에 대해 동일한 지적을 한다. ‘소통의 측면에서 참가자들, 즉 춤추는 사람들 사이의 교감 그리고 춤추는 사람과 춤을 수용하는 사람 사이의 교감이 부진한 편이었다. 장소 특정적 측면에서도 역시 애매하였으며 게릴라춤판은 장소 특정적 맥락이 가장 깊이 발휘될 만한 곳이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정교하게 꾸러질 필요가 있었다고 후술하였다(김채원, 춤웹진, 2013.13).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부동산 투자의 접근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의 가시적 성과주의는 서울댄스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서울문화재단이 공공성을 지향하고자 했으나 정작 공공 공간을 점유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은 간과되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과 주변상황의 변화는 그 공간을 먼저 점유했던 시민들에게도 낯선 것이었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놓이게 되는 불편함에 대한 이해와 갈등의 교차 지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

과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은 채 답다운 방식으로 춤의 발생과 향유 방식을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 2. 자율적인 춤 환경 마련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자율적인 춤 참여 행사임을 강조한다. 서울댄스프로젝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무용전공자의 참여가 줄고 일반 참여자가 늘었으며 2015년 기준 3년간 참여 예술가 900명 이상, 워크숍과 춤판 900회 이상, 자원 활동가 144명, 춤단과 춤바람 커뮤니티로 길러낸 시민 춤꾼 1,504명, 언론보도 480회 이상, 체어댄스 동영상 다운로드 1,800회 이상, 페이스북 구독자 11,893명, 시민 관객 130,000명 이상이라고 집계한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p.44-78). 참여자의 집계를 보면 시민 참여자의 증가 통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단순히 언론보도, 다운로드, sns 구독자로 그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운영과정을 면밀히 드러다 보면 자율적 참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2014 서울댄스프로젝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에서 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보급형 프로그램 ‘체어댄스’영상을 제작하였고 무용전공 대학생 및 아마추어 대상 축제에 작품제작비, 활동제작비를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생겨났다. 2016년은 막춤 콘테스트인 ‘댄스 골든벨’ 프로그램을 통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3인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이벤트와 시와 그림으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애로상담소’도 추가적으로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은 2014년도 행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사업이 2015년 2월까지 연기되었으며 게릴라 춤판(쇼케이스)은 축소 운영되었다고 한다.

‘춤단’의 경우 오디션을 통해 50명이 선발되어 사전워크숍을 받고 행사 기간 동안 각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뿐 아니라 현장 리허설, 공연을 시행하였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48). ‘춤바람 커뮤니티’는 전담예술가 및 보조강사를 매칭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39개, 2014년 26개, 2015년에는 15개의 커뮤니티가 참여했다고 보고한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48).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커뮤니티 댄스의 가치를 표방한 이 행사가 해를 거듭 할수록 참여하는 커뮤니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과 전담예술가가 사전워크숍, 오디션, 월례포럼, 평가회, 오픈클래스, 전문예술가 공연 등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의 경우 2014년은 8회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눠 각각 7회, 8회 구성되었다. ‘서울무도회’는 참여예술가와 참여자, 시민이 함께 과정을 공유하는 핵심적인 축제로 2013년은 태평로, 2014, 2015, 2016년은 선유도 공원에서 열렸고 전문무용수들의 공연은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49). ‘커뮤니티 댄스 랩’은 다양한 예술형식의 실험장을 마련하기 위해 춤과 삶이 만나 춤의 저변을 넓히고 공공성과 가치를 탐구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p.48-49). 특히 소규모 봉계공장이 밀집된 창신동 지역에서 ‘댄스시어터 틱’의 작업은 2년 동안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공유되었다. ‘체어 댄스’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제작이 취소되었다가 교육형과 활용형을 각각 제작하여 서울댄스홈페이지 내에 게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메트로 등과 같은 기관에 지원하여 워크숍 5회를 진행하였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50). 이 워크숍 프로그램이 제공된 기관이 서울시 관련 기관이었다는 점과 투자비용에 비해 짧았던 위

크숍 횡수는 성과적 측면으로 인식하기에는 거리가 있으며 효용성 측면이 간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운영방식은 자율적인 춤 참여를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이다. 사업비 지원과 전문예술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공공성이 갖는 취지와 역행된다.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에도 참여했던 전문예술가 김기훈의 의견에서 축제에 발표가 필요한가에 대해 내부적 의견이 부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춤 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보급한 ‘체어댄스’는 오히려 춤을 규격화하여 도구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참여 시민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 시키기 위해 추가된 대학무용제는 기존의 대학무용제와 차별점이 없었으며 참여한 전문예술가의 인원은 지나치게 많았고 행사가 개최된 공간도 서울시가 보유한 시민생활 공간을 활용하고자 했던 축제 운영 및 취지와 다르게 사업비 지원에만 머물렀다. 로리 카예 코헨(Laurie Kaye Cohen)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 외에도 고정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일시적 공간을 생산하는 퍼포먼스적인 실천행위가 예술을 확장시킨다고 말한다(Laurie Kaye Cohen, 2000; 강슬기, 2021, p.212 재인용). 자율적인 실천행위로 인해 구성되는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공동체 확산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30년 정도 먼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확산과 같은 부작용이 가속화되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김소연, 2009, p.301).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도시와 창조적 계급』(2005)에서 뉴욕시가 전문 예술가를 창조적 계급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매뉴얼로 인식하고 도시 정책에 반영하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김소연, 2009, pp.301-302). 이러한 부분은 주변 지역민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진행된 우리의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공연장을 만들어 전문예술가들을 유입시키려는 전략을 반추하게 된다. 또한 사회 통합적이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는 도시를 위해서는 비영리기관, 공공 영역, 상업적인 영역, 독립 예술가, 지역사회 간의 친환경적인 결합을 중요시해야 하며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일상의 실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재생공간 중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언제든지 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었는가, 과연 도시민의 일상 생활과는 어떻게 밀접하게 연계되는가는 앞으로 춤을 활용한 도시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안이 되어야 한다. 도시 재생 모델은 창조계급에 의존하는 경제성이 아니라 이웃에 기반한 경제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아래로 부터 촉발되는 친환경적인 발전 구조로 발전되는 도시재생모델을 제시해야한다(김소연, 2009, pp.301-302). 플로리다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은 전문예술공연 시스템이나 전문예술가를 지나치게 배치하고 무리한 프로그램 과정을 구성해 놓고 가시적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중앙집권형 댄스 페스티벌을 뒤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 3. 공동체 간의 연계성 및 지속성

도시재생사업과 서울댄스프로젝트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미래를 위한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이다.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공동체 개념에 대해 힐러리(George A. Hillery)는 지리적 영역의 공유(area of geographics),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 유대감(common ties)으로

구성되며 공동체를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정의한다(Hillery, 1955; 송안나, 김세준, 2020, p.124). 여기서 지리적인 영역은 구체적인 공간이자 장소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물리적, 상황적 조건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와 조직, 그리고 사회체계 및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공동유대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서적, 상징적, 문화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구성원들의 정서적 일치, 동질성, 협력의식이다(송안나, 김세준, 2020, p.124). 이러한 세 차원은 독립된 현상이라기보다 일련의 공동체 과정을 말해주는 복합개념이다(강대기, 2003; 송안나, 김세준, 2020, p.124, 재인용). 결국 공동체는 지역이나 장소를 공유하는 물리적 환경 안에서 개인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친밀감이나 소속감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성수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참여 주민유형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참여 활동 관계를 분석한 이유리, 이명훈(2018)의 연구에 따르면 거주민과 생활권자에 따라 공동체 의식, 참여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된 공동체 의식과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이유리, 이명훈, 2018, p.63). 이 연구는 서울댄스프로젝트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이나 장소를 공유하고 상호적 소통을 하는 시민 마다 참여의 방식은 다르다. ‘춤바람 커뮤니티’의 운영은 심사위원의 면접을 거쳐 선정된다. 심사위원은 무용전문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무용예술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존 월렛이 소수 엘리트 예술가들이 대중의 미감을 대변해왔다는 비판 지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에는 춤을 정형화하여 장르화된 형태로 한국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었음을 밝힌다(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 2015, p.63). 김윤진 기획감독은 ‘사실상 춤바람 커뮤니티의 성공의 여부는 전담예술가와 커뮤니티 사이의 궁합에 있다’라고 언급한다. 전담 예술가는 장르화된 무용예술가들로 구성되어 놓고 단체별 성향은 배제된 채 전담예술가의 역량으로 성공을 가늠하는 것은 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이 마련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창신, 송인동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도시재생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과정을 연구한 최지영, 조정진, 손경주(2020)논문에 따르면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주민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계기는 주민이 관심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심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서라고 말한다.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 공동체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선발의 과정을 갖추기보다 지리 및 장소적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만이 필요했다. 선정된 팀들은 이미 형성된 커뮤니티 일뿐 아니라 서로간의 공동 유대감이 긴밀한 단체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지원금에 좌우되는 거대행사였기 때문에 지속성은 당연히 유지되지 못했고 서울 시민으로써 춤 활동으로 얻는 친밀감이나 소속감 형성과 같은 상호작용은 일회적이었다. 지역민들의 지속성과 연계성있는 춤 참여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의견과 모임을 구성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암스테르담 시가 ‘암스테르담스마트시티’ 사이트를 통해 지역민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실질적 예술 공간 또한 지원해줌으로써 지역민의 예술 활동이 생활과 연계되도록 돕는 정책은 의미있게 참고해 보아야 한다(김주희, 2020, p.17).

## IV. 나가는 글

이 연구는 비정상적일 만큼 일었던 도시재생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수없이 강조되던 도시민들을 위한 공동체성이 무엇이며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관계 맺음을 시도했던 춤 사업을 다뤄보고자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과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댄스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역할과 한계점을 논의함으로써 공공 공간의 의미와 공동체성을 되짚어 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도시재생사업은 1960년대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사업 이후 불법 증축되거나 노후화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밝힌 도시재생 목표 중 핵심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면 ‘체감 가능한 도시재생’,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생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내걸면서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을 강조한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누구에게나 늘 함께 춤추는 서울’을 모토로 삼아 다양한 시민 참여형 춤 프로그램을 마련한 페스티벌이었다.

도시재생사업과 서울댄스프로젝트는 공통적으로 ‘행복한 도시민의 생활’, ‘공동체성 회복’, ‘사회적 소통과 통합’이라는 미션을 지니고 있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서울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발생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서울댄스프로젝트가 갖는 역할과 한계점은 첫째, 공론장 마련에 있다. 서울댄스프로젝트의 취지부터가 춤을 통한 공론장 조성이었다. 하지만 지속성을 갖지 못했으며 참여와 공공 공간에 대한 이해는 미흡했다. 이는 가시적 성과주의에 기인하는데, 주최 측의 결과보고서에는 성과중심에서 벗어나 과정중심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 동안 정부기관의 행사가 가졌던 일방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댄스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 있어 공공성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으나 정작 공공 공간을 점유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이 간과되었다. 이해와 갈등의 교차 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과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은 채 답다운 방식으로 춤의 발생과 향유 방식을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 자율적인 환경 마련이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자율적으로 춤 참여가 있음을 홍보하지만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면 자율적 참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과 촘촘한 운영방식은 자율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드러났다. 게다가 보급형 춤을 만들어 춤을 도구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행사의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 시민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 시키기 위해 추가된 대학무용제는 기존의 대학무용제와 차별점이 없었으며 참여한 전문예술가의 인원은 지나치게 많았고 행사가 개최된 공간도 서울시가 보유한 시민생활 공간을 활용하고자 했던 축제 운영 및 취지와 다르게 사업비 지원에만 머물렀다.

셋째, 공동체로의 연속성과 지속성이다. 서울댄스페스티벌에는 심사위원의 선발과정과 프로그램에 배치된 전담예술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엘리트 무용교육을 받은 후 예술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이러한 전문가 배치는 춤을 장르적으로 정형화하려는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점이다. 서울시 지원금에 좌우되는 거대행사였기 때문에 지속성은 유지되지 못했고 서울 시민으로써 춤 활동으로 얻는 친밀감이나 소속감 형성과 같은 상호작용은 일회적이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전국 각지에 설립된 도시재생센터가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을 목도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 도시의 환경과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도입되고 또 빠르게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보다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싶었지만 연구 운영 상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도시재생공간에서 이루어진 서울댄스페스티벌 중 게릴라 춤판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연구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알아보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문화예술의 의미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는 춤 외에도 음악, 미술 분야에서의 문화예술이 재생도시 안에서 지니는 다양한 층위를 읽어낼 수 있는 풍부한 시각과 그 의미, 가치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제공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도시재생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무용학의 범주를 넓히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 ■ 참고문헌

- 곽정연(2017). **문화민주주의-독일어권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글로벌콘텐츠.
- 바커, 크리스(2009). **문화연구사전**(이경숙, 정영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원저출판 2004).
- 박은실(2018). **문화예술과 도시**. 정한책방.
- 서울댄스프로젝트 연구기록집(2015). **춤추는 시민을 기록하다**. 서울문화재단.
- 서울특별시(2017).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지역: 소식지 모음집**.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2019). **서울형 도시재생: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화보집**. 서울특별시.
- 심영규(2017). **쑥쑥 읽는 도시재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원제무(2012). **탈근대도시재생**. 조정.
- 윌슨, 벤(2021). **메트로폴리스**(박수철 역). 매일경제신문사. (원저출판 2020).
- 정종대(2013). **우리마을 만들기: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백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 강맹훈(2017).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 주체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강슬기(2021). **성매매 집결지의 문화적 도시재생 내 예술가의 역할 : 전주 선미촌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99-226.
- 김연희(2017). **친밀한 공동체 형성사례를 통한 커뮤니티 댄스 기능 연구: 부산시 도시재생지원 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주희(2020). **무용교육에서의 리빙랩 활용 가능성 모색. 무용예술학연구**, 80, 15-29.
- 박관호(2016). **정책사업 하에 실행된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댄스프로젝트 3355팀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 송안나, 김세준(2020). **문화기반 마을공동체 정책대상자의 인식, 정서, 역량에 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56, 5-38.
- 이유리, 이명훈(2018).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유형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주민참여 활동과의 관계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1, 51-66.
- 최지영, 조경진, 손경주(2020). **주민조직의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주민역량강화 과정 연구 - 창신·승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1, 35-49.
- 최현주, 안병주, 원서영(2012). **아시아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역할.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0, 177-188.
- 한주연(2003).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의 도시연구: 로스엔젤레스와 탈근대적메트로폴리스. 공간과 사회**, 19, 188-199.
- 공성윤(2021.2.24.). **시간 멈춘 사대문"...860억 쓴 '박원순표 도시재생' 성적표는.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160>, 2022.11.15.>.
- 김소연(2009).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예술경영**, 485. <[https://www.gokams.or.kr:442/webzine/mobile/plan/view.asp?idx=216&page=34&c\\_idx=88&searchString=](https://www.gokams.or.kr:442/webzine/mobile/plan/view.asp?idx=216&page=34&c_idx=88&searchString=),

- 2022.11.15.>.
- 김찬호(2019.1.1.). 서울 도시재생, 재개발과 다른 게 뭐죠?.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1012138015#c2b>, 2022.11.15.>.
- 김채현(2013.11). 서울댄스프로젝트, 교감이 흐르는 커뮤니티 댄스. **춤웹진**. <<https://url.kr/emgjw8>, 2022.11.15.>.
- 김채현(2017.2.23.). 공공 장소의 표현, 춤으로 깨어나다-스테판 코플로위츠의 장소춤. **춤인**. <[http://choomin.sfac.or.kr/zoom/zoom\\_view.asp?type=OUT&div=03&zom\\_idx=168&page=1&field=&keyword=](http://choomin.sfac.or.kr/zoom/zoom_view.asp?type=OUT&div=03&zom_idx=168&page=1&field=&keyword=), 2022.11.15.>.
- 서중권(2022.3.29.). 세종형 도시재생, 줄속으로 줄줄 새는 ‘재정’...“문화거점 헛구호” 비판도시.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584>, 2022.11.15.>.
- 오인경, 강수영(2018.1.10). 공공예술, 도시 변화를 일으키다- 서울·경기 지역 문화재단 공공예술 지원 활동. 공공 예술과 춤의 가능성을 묻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국제학술 심포지엄. **춤웹진**. <<https://url.kr/von2ma>, 2022.11.15.>.
- 정계성(2021.2.21.). 박원순 브랜드 ‘도시재생’ 운명은?. **데일리안**. <<https://m.dailian.co.kr/news/view/965974>, 2022.11.15.>.
- 한지연(2019.3.14.). 서울문화재단 15주년을 기념하며. **문화+서울**. <<http://magazine.sfac.or.kr/html/view.asp?PubDate=201903&CateMasterCd=200&CateSubCd=1926>, 2022.11.15.>.
- 허남설(2021.11.8.). ‘뒤로 가는’ 서울형 도시재생...마을기업들도 ‘취청’. **경향신문**.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111082115035#c2b>, 2022.11.15.>.
- 서울문화재단 사이트. **서울댄스프로젝트**. <<https://www.seouldance.or.kr>, 2022.11.15.>.
- 서울특별시 서울균형발전 포털 사이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https://uri.seoul.go.kr/surc/seoulInfo/aboutURC.do>, 2022.11.15.>.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2013.4.29.). **춤추는 서울** <서울댄스프로젝트> 개막.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16855>, 2022.11.15.>.
- 표준국어대사전. **공동체**. <<https://han.gl/dFbXqJ>, 2022.11.15.>.

논문투고일 2022. 11. 15.

심사일 2022. 11. 24.

심사완료일 2022. 12. 10.

## Dancing City?

– Role of Dance and ambivalence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of Seoul City –

**Kim, JooHee**

Senior Researcher, Hybrid-Future Culture Institut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not only to search and study about the Seoul Dance Projec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of Seoul City and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but also to discuss their roles and limits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public space. Method of this study of investigates related books, papers, live performances, video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eoul Dance Proje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of Seoul City had the same missions as Happy Urban Life, Restoration of Community, as well as Social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In the case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of Seoul City, it focused on providing places to ensure the life quality of Seoul citizens, while the Seoul Dance Project focused on providing a field for the participation of Seoul citizens. Thus, these two projects had a common role to create spaces which publicity and community made. However, they had limits to prepare a public sphere, make autonomous environments, keep the continuity and durability as a community.

**Keywords:** Urban Regeneration Projects(도시재생사업), Seoul Dance Project(서울댄스프로젝트), Seoul(서울), Public Space(공공 공간), Dance(춤)